



# BERITA MALAYSIA



2009년 6월 23일

제 6호



RaonAtti

## Malaysia Association for the Blind



베다니 홈(Rumah Bethany)에서의 첫번째 활동을 마치고 6월15일부터 김근태단원과 김동경단원이 새롭게 일하고 있는 MAB (Malaysian Association for the Blind)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기관으로서 Brickfield KI sentral역 근처에 있으며, KL YMCA와는 도보로 5분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일반인들과 동등한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꾸준히 노력하므로써 그들 스스로 양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의 시력보조를 돕고 있으며, 그들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일반인들과의 통합, 조화를 이룰 수 있게하여 기회를 넓히고 삶을 질적으로 높이려고 한다.



1951년에 설립된 이 단체는 시각장애인들에 사회복지를 위해 정부로부터 만들어 졌으며, 현재 Kuala Lumpur에서 다른 주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복지에 까지도 활동분야를 넓혀가고 있다.

MAB는 교육프로그램, 사회재활프로그램, 직업훈련 등을 할 뿐만 아니라, 직업소개 및 점자도서관, 정보기술센터 자료실을 운영하여 다양한 지식을 접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CBR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계획을 만들어 외곽지에 있어서 직접 MAB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곳에 시각장애인들까지도 공동체와 협력하여 도움을 이끌어 내고 있다.

지금도 계속 사회의 변화하는 요구조건을 수용하고 요구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선되고 확장된 새로운 course와 장비들을 고안해 내고 있다.

-With your help, our world becomes a little brighter, everyday

김동경

풍요로운 물려라!

해원의 생일을 맞아 6일동안 잔치를 벌였다.



가장 소소했던 Jaswanth 집에서 의 BBQ 파티

'interesting'

## Special KFC

말레이시아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다? 그 것은 바로 패스트푸드점!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사실이다.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KFC가 바로 그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무엇이 한국에는 없고, 이 곳에는 있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자.

6월 12일 우리 라온아띠 말레이시아 팀원들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쿠알라룸푸르 시내에 있는 한 KFC 매장을 찾았다. 신기 한 것은 보통 패스트푸드점은 흥겨운 음악소리와 직원들의 우렁찬 인사말이 제일 먼저 우리를 반겨주건만 이곳은 유달리 조용하다. 보통 KFC가 아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은 청각 장애인이었다!

청각장애인들만 일하는 패스트푸드점이라 생각하면, 그들이 어떻게 주문을 받을지, 어떻게 음식을 준비할지 궁금하기에 앞서 걱정이 된다. 물론 우리 팀원들은 이곳의 수화를 구사할 수 있기에 주문이 힘들어 않았지만, 수화를 몰라도 걱정하지 마시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 간단한 손짓과 VGC (Visual Gesture Conversation) 만으로도 모든 주문이 가능하다. 종종 우리 친구들이 해외 배낭여행 경험을 이야기하며, 불어 한마디 몰라도 파리의 맥도날드에서 손짓발짓으로 잘 시켜먹은 경험담을 자랑스레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저 그들은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인데..

음식을 주문하고 먹고 있으니, 종업원이 신기한 듯 우리에게 다가온다. 뭔가 외국인인 듯 생긴 사람들이 어설프게 수화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신기할 법도 하다. 우리는 자기 소개를 하고 그 곳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1986년부터 청각장애인들이 운영하는 매장으로 시작하였으며, 이 곳에서 일하는 18명의 직

원 모두 청각장애인이다. 종업원 위에 3명의 매니저가 있는데, 이 들 중 1명은 마찬가지로 청각 장애인이라고 한다. 이런 KFC 매장이 말레이시아에는 3곳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만 있다고도 덧붙였다.(인터넷을 검색하여 보니, 이집트 카이로에도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 나라의 열려있는 생각에 자문해보았다.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곳이 없을까? 과연 한국에서는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청각장애인이 있었던가? 아니 그들을 쉽게 볼 수 없었다면, 내가 왜 그들을 보지 못했을까? 우리 사회가, 우리들의 마음의 벽이 그들을 사회 울타리 밖으로 밀어냈던 것은 아닐까?

청각장애인이지만 작은 패스트푸드점의 정식 직원으로서,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방식을 보며, 하루 종일 가슴 한 칸이 무거웠다. '나' 라는 한 개인이 커다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겠다. 아.. 한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한국 KFC에 편지를 써야겠다. 어디선가 힘겹게 자기자신의 삶을 지켜가고 있을 청각장애인들을 위하여 먼저 그들에게 기회를 주라고..

그 들은 우리와 조금 다른 몸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김근태

# 'Activity'



지난 6월 12일 KL Performing arts center(KL Pac)에서 타악기 워크샵이 열려 HANDS와 MOKABA ART GROUPS가 주도하는 워크샵에 참여하였다.

HANDS는 중국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음악으로 북을 쳐서 연주하는 것으로 농사철에 연주하였으나 현재 중국,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연주되고 있다.

MOKABA ART GROUPS는 말레이시아 반도의 동쪽 해변가의 음악이며 다른 지역에서 이 음악의 매력에 빠져 배우로 올 정도로 매력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사물놀이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MOKABA(마카바)를 좀더 소개를 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의 사물놀이는 팽과리, 징, 장구, 북 등의 타악기를 사용해서 연주하는 리듬 음악을 연주하는 민속음악인데 말레이시아아의 마카바 또한 큰북, 작은 북, 징 등을 연주하는 타악기라는 것이 비슷하다. 사물놀이는 팽과리는 지휘를 하며 처음과 끝을 알리며 팽과리의 장단에 따라서 연주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처럼 마

카바에서는 큰 북이 팽과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마카바 그룹에서는 전통 8개의 악기를 연주함과 동시에 탠버린을 함께 연주하기도 하여 퓨전음악의 느낌도 받을 수 있었다.

MOKABA(마카바)는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노래의 장르는 다양할 수 있으며, 말레이시아 바하사, 영어 등 다양한 언어로 노래할 수 있었다. 전통적인 악기로 현대적인 노래와 함께 어울려 질수 있다는 것이 인상깊었다.

김보영



## 채해원님의 생일 -번외-, jasmine의 결혼



채해원님의

birthday cake



생일 파티 in PMY.

